

금성정보통신 을 찾아

“을 임투는 사무기술직과 현장 기능직의 임금격차의 폭을 줄이는 것이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기능직 임금을 사무직의 9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84%에 그쳤지만 전 집행부와 비교하면 새로운 성과물이고 이를 이후 사업의 추진력으로 삼겠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 사용하는 전화 교환기 생산업체인 구미공단의 금성정보통신(사장 이만용) 노동조합 위원장 박명환(29)씨는 을 임투의 성과를 이렇게 말한다.

술직노조 가입문제, 그들 협의회 활성화를 임기중의 중심사업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금성정보통신노조가 안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사무기술직의 노조가입문제가 그것.

현재 구미공장을 비롯한 본사와 안양연구소 시설사업부에 있는 1천3백여명의 사무기술직 노동자의 조합가입과 지부결성이 회사측의 치밀한 방해공작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해 사무기술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움직임이 있었을 때 회사측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원·경영자협의회를 만들어 가로막았고, 올해도 현집행부가 사무기술직의 노조가입과 지부설립 조항을 넣어 규약을 개정하려하자 주도자 2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징계, 병역특례자인 해고자에게 ‘군입대라는 개인적 불이익’을 위협의 도구로 당사자와 조합원들에게 노조포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박위원장은 회사측의 방해로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이에 맞설

공간 전환제’를 도입해 기능직 노동자의 상승욕구를 이용, 회사에 충성하게 만드는 등 현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측의 사상적·물질적 공세에 맞서 소모임 등을 통한 교양·선전과 특히 구미지역 전자공단 대부분의 노조가 여성노동자의 참여율이 부족한 점을 고려,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과 일상적 교양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금성정보통신노조는 회사의 방해를 단결로 극복하는 것, 아직도 사무기술직 노동자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생산직 노동자의 의식, 타 사업장과의 연대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금성정보통신노조는 구미지역 노조대표자회의에 초기에는 참가했다가 조합내부의 이견으로 지금은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꾸준한 조직강화를 통해 회사의 분열책동을 뚫고 우리는 하나가

직종간 장벽넘어 하나의 노조 만들터 기능직임금 사무직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난 6월1일 금성반도체에서 금성일렉트론이 분리된 금성정보통신은 이로인해 조합원의 수가 반으로 줄어 8백50여명(남자3백50여명, 여자5백)으로 현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금성반도체(현 금성정보통신)노조는 지난 83년 현 한국노총 구미지역 협의회 의장으로 있는 박영식 초대위원장에 의해 결성됐고,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파업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의 새로운 시도를 하게됐고 올 1월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는 그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었다. 회사측의 어용선집행부 지원을 위한 교양교육, TR상영과 각종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 건설의 열기로 3대 집행부가 출범한 것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앞으로의 노조사업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구태의연한 조합원들의 의식교양을 위해 조합의 조직력 강화사업과 의식·교양교육, 사무기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작업’에 맞서 꾸준한 조직강화와 연대사업등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의 힘찬 걸음을 걷겠다는 박명환 노조위원장

수 있도록 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해 이후 사무기술직 노조설립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겪는 또하나의 어려움은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작업.

회사측에서 노무과를 노사협력과와 교육과로 분리해서 노동자들에게 이념교육을 강행하고 ‘직

필 것이고, 민주노조 건설의 힘찬 발걸음으로 지역대표자회의에도 다시 참여할 것입니다.”

박명환 위원장의 결의에 찬 모습 속에서 민주노조 깃발아래 우뚝 선 구미지역 노동자의 힘찬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대구=이상태 기자〉